

격 월 간 발 행
2022.4/5
vol.288

사람 세상





한 벗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 · 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미안마 한벗지부 운영

(미안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모차 장애아동에게 기증)



미안마방정환기금

(어린이잡지를 미안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벗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행)



한벗보조공학센터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보조기구 지원)



미얀마의 시민항쟁을 잊지 않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시민항쟁은 잔혹한 군부에 의해 제압되었다. 이제 민주화를 위한 긴 고난의 길만 남았다. 용감하게 맞선 젊은이들의 죽음, 쟁반을 두드리며 울부짖은 엄마들의 눈물은 언젠가 당신들의 역사에 되살아날 것이다. 한뼘 또한 그날을 기다리며 굳은 결의를 품는다.

미얀마에는 방정환기금의 어린이잡지를 받아보는 2만여 어린이가 있다. 그리고 2천명의 보육원생과 유모차를 받고 기뻐하던 3천여 엄마들, 먼 한국에서 보낸 구호금에 합장한 난민들과 부상자 가족이 있다.

미얀마에 작은 복지센터를 짓자!



지난 2월, 한뼘의 김경희, 김자희 자매가 원조를 지속하기 위해 현지 복지센터를 짓자는 제안을 해왔다. 벽찬 계획이었으나 이미 장기기부를 이어가는 방정환기금과 휠체어날개달기 회원들의 의견을 묻은 결과 이

방식이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한뼘은 2018년, 명지춘혜병원 **장혜실** 이사장의 회사금으로 보육원에 컴퓨터교실과 도서실을 지은 경험이 있다. 5천만원이면 50~60평의 다목적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센터를 지으면

우선 올해 미얀마로 들어갈 **김옥주/정순이** 부부가 머물며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다. 회원들이 방문하며 갖가지 용품을 전할 수 있고, 회원자녀들의 봉사활동과 기술봉사자가 머물며 놀이기구 제 작과 휠체어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 또 컴퓨터교실과 도서관 운영, 장난감과 유모차 기증을 비롯해 마을 주민과의 사귄과 생활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미얀마 복지센터 건축기금

국민은행 763601-04-155077. 예금주 : 한뼘재단
두 손을 모으고 기금모금을 시작합니다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 미얏 우 회장 별세



2012년부터 한빛과 우애와 협력을 다져 온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장 미얏 우(Myat Oo) 회장이 간암으로 지난 3월 별세했습니다.

어린이영양제 제조회사를 경영하는 ‘미얏 우’ 회장은 양손가락 장애로 일상생활 불편이 크지 않지만, 같은 지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난 2004년, 미얀마 최초로 협회를 설립한 후 매월 고액을 기부하여 협회 사무실 운영과 조직을 키워왔습니다(현재 전국 23개 지부 회원 9천명). 또 한빛 초청으로 2013년과 2015년, 협회 임원을 인솔해 한국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고인을 그리워하며 명복을 빕니다.

미얀마 외국인 입국 허용 - 22년 4월 17일부터

2020년 2월 쿠데타 발발 이후 외국인 입국을 막았던 미얀마 당국이 2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17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군부가 시민항쟁을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또한 자국민의 코로나 감염률이 낮아진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외국인은 백신접종과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도착 후 공항에서 24시간 격리와 음성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한편 미얀마의 코로나19 확진은 4월 15일 현재 5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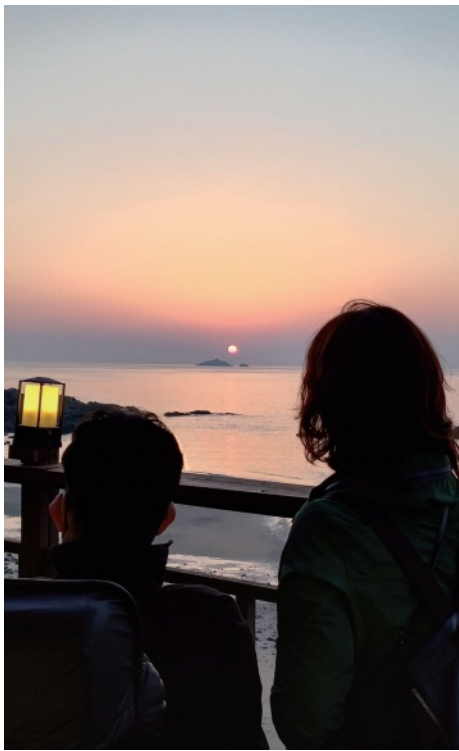
한빛, 8-9월 방문예정

미얀마 당국은 현재의 야간통행금지조치를 6월 18일 해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한빛은 치안과 현지 정세 안정을 확인한 후 출발할 예정입니다(8월 혹은 9월).

오래 동안 만나지 못한 지인들과 보육원의 어린이와 반가운 포옹을 나누고 장기원조를 위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신청 : 010 - 3359 - 2458. 백진양)



“일몰에 참여하라”



지난 4월 하순, 3년여 집에 갇혀 있던 장애인들이 선유도와 변산반도를 다녀왔습니다. 회원 후원금으로 마련한 이번 관광은 장애인 3명과 보조인 3명을 한 팀으로 편성해 여유롭고 풍미 있게 진행되는데 총 5회에 걸쳐 장애인 15명이 서해안과 동해안 여행에 참여하게 됩니다(4월 2회 - 서해안, 5월 3회 - 동해안).

4월에는 서해안 최고 인기 관광지인 선유도 유람과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고급 펜션에서 1박. 그리고 격포항의 1.2km 바다 데크와 천년 고찰 내소사를 거닐고, 곰소의 유명음식 계장백반을 맛보았습니다.

한벗 게스트룸 제공

이번 관광에는 경상도 창원과 김천에 거주하는 장애인 2명이 참여했는데 하루 전에 상경한 이들에게 게스트룸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숙박관광기회를 갖기 힘든 지방 거주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10월부터 일본 오사카 관광 재개

코로나19 만연으로 중단되었던 장애인 해외관광을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오사카(10월)와 태국(12월)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귀국까지 같은 직원이 동행하는 한벗의 해외관광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 관광편의를 위해 가급적 소규모 인원으로 편성하며 3명이 신청해도 시행합니다.

원하시는 분을 미리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 : 02)393-0661. 최우람 국장





구세군의 희망나누미 선물

이용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물을
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자 우리 주간보호센터에도 이용장애인들이 점차 늘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때에 맞추어 고맙게도 구세군 희망나누미에서 아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가져오신 선물은 무려 10여 상자! 선물 상자 하나씩 열자, ‘우와~’ 우리 식구들의 감탄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발마사지기와 스팀다리미, 과자, 라면, 음료, 고급영양제 등등. 어찌면 이렇게 갖가지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이제 우리 부자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기회에도 이용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물을 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주간보호실 식구들, 신났습니다.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

- 숙명여자대학교 유서정, 김아진, 진효정
- 홍익대학교 이해원

선물 고맙습니다

- 임연하 님 - 비요프 2박스, 카스테라 2박스
- 이준표 이용자 - 어머님 크리스핏 도넛 2박스
- 푸드뱅크 - 빵 60개 • 구세군 희망나누미 선물

한뼘등지 소식

재덕이와 범준이 봄나들이 나왔어요



2년 넘게 감염 걱정으로 몸 사리며 등지 안에서만 꿈꿨던 장애식구들이 드디어 봄나들이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어느새 활짝 핀 목련, 개나리, 벚꽃, 조팝나무……. 깊은 호흡으로 봄바람을 맞았답니다. 또 재덕, 범준이가 좋아하는 달달한 케이크와 음료수도 맛있게 먹었지요.

이제 도시락을 싸서 자주 나와야지요.

기부해 주신 후원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2월 17일 ~ 4월 15일 ()안은 횟수)

강순기 1만(3) 강신순 2만(2) 강인수 1만(2) 강훈선 1만(2) 교유미 1만(2)
공영순 2만(1) 광봉현 1만(2) 구혜림 1만(2) 권명현 5천(2) 권미정 3만(2)
권영수 15만(1) 길 현 5천(2) 김간란 5만(2) 김명순 1만(2) 김미진 2만(2)
김민서 5천(2) 김선헌 1만(2) 김승빈 5천(2) 김여은 2만(2) 김영진 1만(2)
김예찬 1만(2) 김용락 5천(2) 김윤근 1만(2) 김윤희 1만(2) 김인곤 1만(2)
김인숙 1만(2) 김종호 5만(2) 김태일 1만(2) 김한서 5만(2) 김호영 1만(2)
마은영 5천(2) 문정희 2만(2) 박성준 1만(2) 박지원 1만(2) 박찬울 1만(2)
박푸름 1만(2) 박해진 1만(2) 박희수 3만(2) 백승열 4만(2) 서인숙 1만(2)
성다혜 1만(2) 송옥진 1만(2) 송은숙 1만(2) 송재하 1만(1) 오광진 1만(2)
오성진 1만(2) 원석범 2만(2) 유정자 10만(2) 윤덕수 2만(1)
윤일심 3만(2) 윤정애 1만(2) 윤태훈 1만(2) 이정진 1만(2) 이대환 1만(2)
이병수 2만(2) 이상수A 1만(2) 이상수B 1만(2) 이수경 3만(2)
이옥순 1만(2) 이윤경진보 5천(1) 이재호 1만(2) 이지영 1만(2)
이태균 5만(2) 이태환 1만(2) 이현주 5천(2) 이혜란 5천(2) 임경숙 5천(2)
임재창 3만(2) 장영숙 1만(2) 장진섭 1만(2) 장호근 1만(2) 정영진 1만(2)
정완교 1만(2) 제갈윤 1만(2) 조기택 2만(2) 조길용 3만(2) 조민진 2만(1)
조병훈 3만(2) 조성윤 5만(2) 조은미 5천(2) 조은이 2만(2)
조은주 10만(1) (주)삼솔무역 5만(2) 지현정 2만(2) 진 권 2만(2)
차민우 1만(1) 채순옥 2만(2) 천병수 1만(2) 최경희 1만(2) 최미정 1만(2)

최선영 1만(2) 최순우 1만(2) 추지훈 1만(2) 한지행 1만(2)
한초덕 2만(2) 한혜림 2만(2) 홍영미 10만(2) 황민규 2만(2)
황정현 3만(2) 서강어린이집 201,000원 열림교회 10만(2)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물 고맙습니다.

(2월17일 ~ 4월15일)

- 김석검(후원) 비타민 등 / 김창현(후원) 티슈,
- 박주용 부모님(이용자) 닭 등 / 부흥사세탁소(후원) 천혜향 등
- 송재하(후원) CD플레이어 / 여일구(후원) 닭
- 진권(이용자) 엿 등 / 한혜림(후원) 빵 / 서강어린이집 빵
- 진안교회(후원) 시리얼 / 롯데카드 각종 식재료 등
- 푸드뱅크 간식 등

지축복지관소식

지축복지관 주민 서비스 시작



4월 중순부터 문 열어

지축동(고양시) 임대아파트 단지 입주자 87% 정도 완료됨에 따라 지축복지관이 내부 인테리어와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지난 4월 중순부터 문을 열고 주민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52%)과 장애인(287명), 한 부모 세대가 많은 정황임을 감안하여 우선 경로식당 운영과 도시락 배달을 비롯해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아동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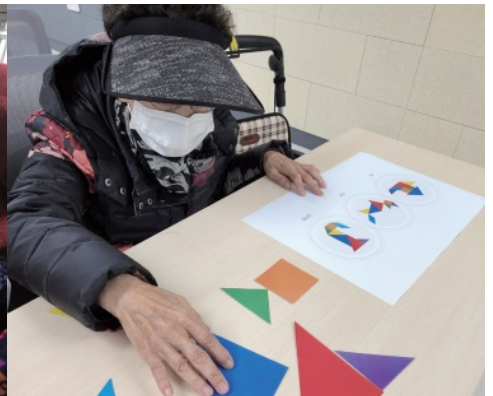
복지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온 단지의 많은 노인을 위해 건강체조, 스마트폰 교육, 친구 맺기, 영화관람,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5월부터 다운장애아동을 위한 언어와 놀이, 감각치료 센터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노인교실



친구 맺기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축종합사회복지관 02)381-8938

9월부터 중고유모차 빈곤국 기증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유모차의 아시아 빈곤국 기증사업이 하반기부터 재개됩니다.
중고유모차 기증접수는 현재 보유량을 보낸 후, 9월부터 방문접수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에도 중고유모차 기증

지난 4월 하순, 필리핀의 「소록유니재단」(이사장 장재중)과 한벗재단은 유모차와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기증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반기부터 필리핀에도 중고 유모차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소록유니재단을 설립(2002년)한 한국인 기업가 장재중 회장은 필리핀에서 해운업, 광산업, 무역업을 펼치는 분으로, 소외 받는 한센인을 위해 '소록 유니', '사마리아', 'MCS' 등 정착마을 3곳을 조

성하여 1,000여 명의 한센인들에게 삶의 터전과 일터,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노숙인, 저소득층, 소수민족 등에도 장학금과 생계비, 긴급구호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록도의 '이춘상' 기념비 건립에도 1,200만원을 기부하여 건립을 선도한 분입니다.

재단소식

6월부터 마사지, 헤어커트 시작합니다



작년 7월 시작하려다 코로나 만연으로 중단한 얼굴마사지와 헤어커트를 6월부터 시작합니다.

한국미용학회 피부미용위원회(위원장 김은영 교수)가 제공하는 피부미용은 매월 1회, 토요일 2시, 한벗회관 2층에서 갖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피부미용회사인 <약손명가>에서 고급 마사지용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는 6월은 작년 신청자가 받게 되는데 날짜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7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오행담 실장 / 02)393-0661

- 전인대 님 : 수동휠체어(1대), 샤워체어
- 김옥주 님 : 수동휠체어(3대)
- 남시준 님 : 수동휠체어(3대), 샤워체어
- 유시영 이사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각 1대

휠체어 기증 감사드려요

이제 코로나가 가라앉게 되어 미얀마 등 남동아시아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내기도 재개됩니다.

중고휠체어라도 현지에선 실로 귀한 선물입니다.

한뼘을 잊지 않고 기증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위에도 권해주세요.

휠체어뿐만 아니라 각종 중고 보조기기도 기증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전화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기증문의 : 02)393-0661

재단소식

이종직 선생 퇴직하시다



지난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빛의 관광버스를 맡아 운행하신 이종직 선생이 충남 예산의 펜션 운영을 위해 부득이 지난 4월, 퇴직하셨습니다. 선생은 오로지 장애인에게 관광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고마운 정성으로 오랜 기간 끊임없이 봉사해주셨습니다. 선생의 뜻에 찬탄을 올리며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윤동녕 교수님의 특별기부금

2017년, 한빛에 휠체어를 기증하신 인연으로 매년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서울장신대의 윤동녕 교수님이 이번에도 100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깊은 격려 받았습시다.

아! 오정선 간호사

1981년 한빛이 소록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맞아주신 오정선 간호사님은 소록도가 베풀 잇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작년 12월 100만원 특별후원에 이어 올해부터 정기후원금을 10만원으로 올려 보내주십니다.

뇌성장애인 교양대학의 김양희 선생님

1991년 시작한 뇌성장애인교양대학을 기억하시나요? 2년 동안 매주 출강하며 장애인을 사랑해주셨지요. ‘공주님의 치마’에서 당시 학생이던 오운석 씨 별세 소식을 접하고 기부금을 보내셨습니다.

휠로피아 김윤제 사장님 래차 하세요

심한 욕창과 한쪽 다리 절단으로 1년 여 고생하다 퇴원한 사장님이 집에서 요양하며 특별기부금 30만원을 보내오셨습니다. 다시 왕성한 모습 보여주세요.

김경미 님

날개달기 회원이신 님이 지난달에 이어 이 달에도 20만원 특별후원을 해주셨네요. 뵙고 싶습니다.

김미현 선생님

80만원을 기부해주셨는데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지난 소식지에 소개한 국기호 감정평가사 님을 ‘감리사’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송구합니다.

한빛 게스트룸,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소개한 분이나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화장실, TV, 에어컨, 침대, 쇼파, 테이블 등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 02)393-0661



드디어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반가운 얼굴 만나 기꺼운 사연 만드시기를...

22년 3월 ~ 4월 입금내역. ()안은 개월 수

〈미국 교민 후원금(달러, 칼린)〉

〈2022년 3-4월〉 ()은 개월 수

• 달러(\$3,140)

정기기부 김윤원 \$200(2) 스텔라 \$200(2) 장덕환 \$100(2) 케니김 \$30(2)
지나 \$20(2) 김애숙 \$30(2) 김익태 \$30(2) 오원성 \$20(2) 조대응 \$20(2)
김미희 \$20 장재숙 \$20(2) 줄리안 \$120

6개월분 광영애 \$120 송수선 \$120 Qick Car \$120

특별기부 김애신 \$1,000 이향순 \$300

• 킬린(\$710)

정기기부(\$30) 성인숙(2), 최정임(2) (\$25) 조마라나(2)
(\$20) 고향미(2), 김글라라(2), 김은희(2), 김혜중(2), 김대례사(2), 박순화(2)
백수산나(2), 베로니카(2), 송영희(2) 이사벨라(2), 이영란(2), 이정숙(2),
줄리(1), 허양옥 목사(2)

‘공주님의 치마’ 책 보고 기부해주신 분

- 달러(\$30) 김지영 \$10 오원성 \$10 조대응 \$10
- 킬린(\$160) 김지영(사우스캐롤라이나) \$100 최정임 \$50 김글라라 \$10

〈한빛재단〉

문숙자(2) **이상 1,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춘(2) **이상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광안나(2)
곽환상(2) 구자균(2) 구재순(2) 김관중(2)
김대현(2) 김동수(2)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김포/1) 김수영(2)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2) 박병진(3)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3)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애(2) 신인아(2)

신혜경(1)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2)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2)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종태(2) 이지영(2)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규영(2) 조명순(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진숙(2) 홍영일(2)
홍혜경(2)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필구(1) 강희정(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동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2) 김보금(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송파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2) 김인숙(부산2) 김자경(1) 김재환(2)
김종용/전정원(2) 김준형(2) 김진수(2)
김진원(안산2) 김철희(2) 김철철(2) 김한영(2)
김행(1)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2)
김화중(2) 나효진(2) 노현욱(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의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주(김천1)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재(2) 박일현(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춘숙/김신근(2) 백지웅(1)
서동범(2) 서미란(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송정석(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1)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상분(2) 오성곤(2) 오용석(2) 오희원(1)
윤경자(2) 이건수(2) 이금주(1) 이동인(2)
이명옥(2)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민정(1) 이상선(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미(2) 이성직(2) 이송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1) 이영환(2)
이외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정우(1) 이종빈(2)
이종태(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이형영(2) 이호성(2) 임경민(2) 임난숙(2)
임동상(2) 임옥자(2) 임정순(2) 장관용(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1)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2)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진영(2) 조학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명선(2) 최순희(2)
 최유미(2) 최중문(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추정일(2) 태효원(2) 표창호(2)
 하정희(2) 한경미(2) 한성진(2) 한혜숙(2)
 함정혜(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경희(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황해국(2)

이상 10,000원

김병석(3) 현영돈(2) **이상 15,000원**

강만희(3) 강순화(2) 강영철(2) 김민주(울산2)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1) 김용신(2)
 김인숙(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1) 백봉현(2)
 백지웅(2) 서성민(2) 신광재(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이주연(2)
 오정연(2) 유광주(2) 이광범(2) 이남숙(2)
 이미경A(2) 이상권(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2) 이성재(2) 이숙재(2) 이정림(2)
 이주형(2) 이화경(1) 이희재(2) 임원기(3)
 조윤식(2) 최경희(2)

이상 20,000원

강재철(2) 김계영(2) 김은경(1)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A(2) 박용길(3) 신화용(2)
 오청근(2) 윤경자(2) 이상길(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2) 정병배(2)
 최종락(2) 홍성관(2) 황영배(1)

이상 30,000원

박종성(2) **이상 35,000원**

고명지(2) 서판임(2) **이상 40,000원**

김은영(2) 김은주(2) 김의규/구자명(3)
 김지웅(1) 김현수(2) 김홍현(2)
 민택산업/남기백(2) 박문영(2) RTX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유시영(1) 이정숙(2)
 이종우(2) 최혜자(2)

이상 5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헬로피아/김윤제(2) 김자희(2) 강무진(2)

구태연(2) 김윤희(2) 노희정(2) 박지연(2)
 안성환(2) 여재형/신지영(2) 오선환(2)
 오정선(2) 이승수(2) 이영숙(2)
 장우형 부이사장(2)

이상 100,000원

채진석 이사(2) **이상 150,000원**

명지춘혜병원 교회(2) **이상 900,000원**

특별후원금 : 김양희 100,000원

김윤제 300,000원 이정우 100,000원

쿠메스님 50,000원

〈휠체어날개달기〉

전교수(2) **이상 3,000원**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2)
 김동현/김승기(2) 김명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숙(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재(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1)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2)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1)
 신승엽(2) 안종필(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진수(2) 이혜령(2) 이혜숙(1)
 이현경(2) 이형재(1) 이혜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혜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묵(2)
 조선행/김은하(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2) 최유경(2) 최윤지(2)
 최진숙(2) 추경은(2) 한정민(2) 한충길(2)
 한혜영(2) 허명희(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1) 김덕길(2) 김일
 생(2)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박정경(2)
 손기현(1) 송경자(2) 오문영(2) 이상희(2)

이연우/박정현(2) 이혜숙(1) 이형재(1)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2) 장혜연(2)
 전승완(2) 정경호(2) 정연희(2) 조민숙(1)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명숙(2)
 한광희(2)

이상 20,000원

김옥수(2) 김옥주(2) (주)송지(2)

이건우/박정현(1)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주)서버존(2)

이승훈(2) 장영순(2)

이상 50,000원

박형상(2) **이상 100,000원**

변천섭(2) **이상 200,000원**

특별후원 : 김경미 200,000원,

〈한벗동지〉

고현우(2) 공아영(2) 기효순(2) 김계자(2)
 김인경(2) 김재열(2) 류민경(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2)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최은미(2) 한경희(2)

이상 5,000원

강현(2) 곽영현/장형기(2) 구성모(2) 권오준(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희(일산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선옥(2)
 김세연(2) 김연주(2) 김용미(2) 김우주(2)
 김인순(2) 김정남(2) 김혜정(2) 남성현(2)
 노신규(2) 류재남(2) 박건우(2) 박경희(1)
 박리라(2) 박상현(2) 박용우(2) 박일현(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1)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2) 서민향(2)
 서정민(상암2) 서희주(1) 신동연(2)
 안국회(1)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현태(2) 여일규(2) 우기후(2) 우춘자(2)
 이강전(2) 이소정(2) 이송순(2) 이영순(2)
 이용식(2) 이종욱(2) 이해순(2) 이희권(2)
 이희숙(동지1)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장순주(2)
 장철만(2) 전예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진하(2) 정향남(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최은미(2)
홍윤재(2) 황진숙(2)

이상 10,000원

강희정(2) 김경란(2) 김성우(2) 김정애(1)
김희량(2) 박민희(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이선우/김연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2) 정현주(2) 한재형(1)
함중수/한정옥(2)

이상 20,000원

곽형우(2)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윤영(동지1) 성낙일(2) 오범균(2) 이용기(2)
이재용(2) 임해숙(1) 정은영(2) 최갑석(2)

이상 30,000원

김간란(2) 윤미선(2) 조항미(2) 홍영미(2)

이상 50,000원

주지연(2)

이상 100,000원

하대주(2)

이상 200,000원

〈한빛등지와 함께하는 ‘운광이의 하루’〉



박현민(2)

이상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김진아(2) 안성운(1)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이상 1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이상 2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김선광(2) 이태희(2)

이상 30,000원

김혜원(2) 유경환(2)

이상 50,000원

최수진(2)

이상 7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이상 100,000원

〈주간보호센터〉

김운수(2) 조승현(1)

이상 5,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양영춘(2) 오선주(2) 윤준호(2)
이경주(1)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한정환(박종미)(2)

이상 10,000원

김민정(2)

이상 15,000원

김정훈(2) 김종범(2) 신효숙(2)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2)

이상 2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1)

이상 30,000원

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

김현진(1)

이상 100,000원

통권 제 288호

발행일:2022년 5월 10일

발행인:최명숙

제작:한빛재단

주소:(04319)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02)393-0661(대)

MOBILE:010-6747-0661

FAX:(02)712-6093

이메일: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www.hanbeot.org

한빛재단 임원

법인이사: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묘 채진석

유형진 유시영

법인감사:강만희 김훈

운영위원회:백진양(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부서별 연락처

한빛등지:02)336-3100

주간보호: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02)713-1005

한빛투어:02)702-1515

고양시 지속종합사회복지관:02)381-8938

22년 2 ~ 3 월 재 정 보 고 (2개월 합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후원금	재단	20,876,750	인건비	급여, 보험	15,780,950
	등지/주간	7,010,000		일용잡급	1,400,000
	날개달기	3,896,000	운영비	운영비	3,390,147
	방정환기금	1,961,200		직책보조비	1,160,400
	미안마의연금	1,050,000		소식지	1,113,350
건물임대	관리비 등	1,796,980	공과비	공공요금	2,796,950
	임대료	10,000,000		공과금	406,090
기타	잡수입	420,000	사업비	해외사업	6,892,200
				국내사업	640,000
			전출금	등지, 주간보호	6,310,000
			건물관리	임대관리 등	1,634,110
			상환금	원금, 이자	5,487,309
총계		47,010,930	총계		47,011,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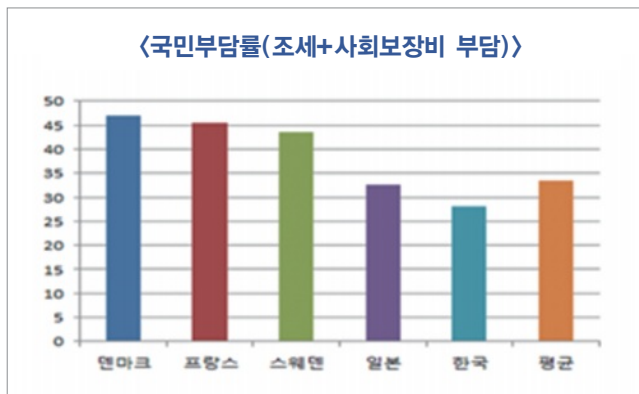
“일몰에 참여하라”

한 벗 장애인 여행

사 랫 세 상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을 넘자 선진국이 되었다며 좋아하고 있다. 현대 의아한 지표가 있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복지수준이 꼴찌(35위)라는 것이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분명히 전보다 좋아졌는데?



덴마크 47%. 프랑스 45.4%. 스웨덴 43.6%. 일본 32.5%
한국 28%. 평균 33.5%

살기 좋은 나라란?

한국은 총생산량(GDP) 세계 12위로 돈 많이 버는 나라이다. 그런데 〈자살률 26년째 1위〉, 〈노인과 청년자살률 최고〉, 〈노인빈곤률 최고〉이다.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다면 살기 좋은 나라 아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가? 학자들의 진단은 이렇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세금을 빼앗기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라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내라고?

이런 말 했다가는 한국에선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다.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더 내게 되어있는데 이들이 가만있겠는가? 하지만 복지는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다.

세금을 더 내겠다

스웨덴은 세계적인 복지국가이다. 1970년대 말, 스웨덴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세금을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적은 나라로 나가버렸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차라리 세금 더 내고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는 게 낫다며.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국민이 뭘 몰라서 세금 많이 내는 게 아니다. 치밀한 계산의 결과이다.